

01

감염병 이슈(노로바이러스)

▶ 원인

-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에 의한 감염
-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
-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비말감염이 가능
- 노로바이러스는 적은 바이러스의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
- 노로바이러스는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, 영하의 온도, 60℃까지의 가열, 염소 혹은 알코올 소독에도 살아있음

▶ 증상

- 평균 24~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, 구토, 설사의 증상이 발생
- 소아는 구토, 성인인 설사 증상이 흔함
- 두통, 발열,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증상이 동반
-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~8회 정도 발생



▶ 치료 및 관리

- 수분과 전해질 보충 등의 대증 치료가 필요
-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부족해진 수분을 채울 수 있음 (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함)
- 65세 이상 고령자는 증세가 쉽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액 치료가 요구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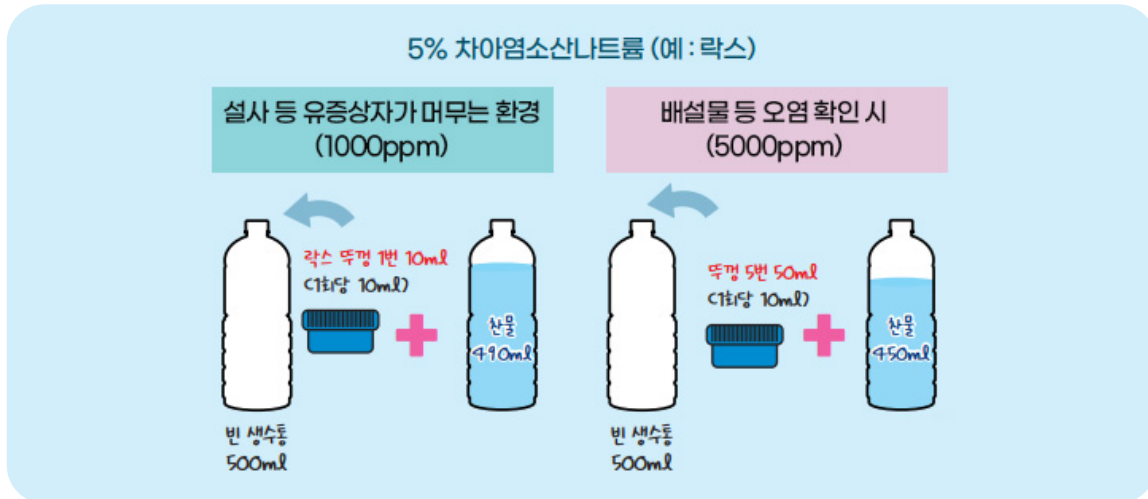
▶ 예방

-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
 -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
- 안전한 음식섭취
 -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
 - 끓인 물 마시기
- 안전한 음식 조리 하기
 - 과일이나 채소는 염소가 포함된 물로 깨끗이 세척하기, 어패류는 조리하기

▶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

- 소독액 만들기(1,000ppm)

1. 깨끗한 빈 생수통(500ml)를 준비한다.
2. 생수통에 가정용 락스를 수저 1스푼(10ml) 넣는다.
3. 나머지는 냉수로 채운 후 잘 섞는다.



- 주의사항

- 꼭 찬물에 희석하기(뜨거운물에 희석하면 수증기를 통해 독소를 흡입하기 쉬움)
-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기(밀폐된 공간 금지)
- 용기에 이름표 꼭 붙이기(희석일시, 희석농도, 소독제명, 유효일시)
- 만든 후 24시간 내에 사용(24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떨어짐)

- 구토물 청소

- 일회용 장갑, 마스크, 앞치마 착용
- 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5분정도 덮은 후 닦기(오염물 제거)
- 닦은 종이타월을 바로 비닐봉투에 넣고 소독액 붓기(소독제로 표면소독)
- 구토물이 묻은 바닥도 소독액으로 닦기
- 사용한 장갑, 마스크, 앞치마 비닐봉투에 넣고 소독액 붓기
-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
- * 문 손잡이 및 화장실과 같이 자주 닿는 표면의 경우 하루 1회 이상 소독
- * 접촉이 빈번한 곳은 더 자주 소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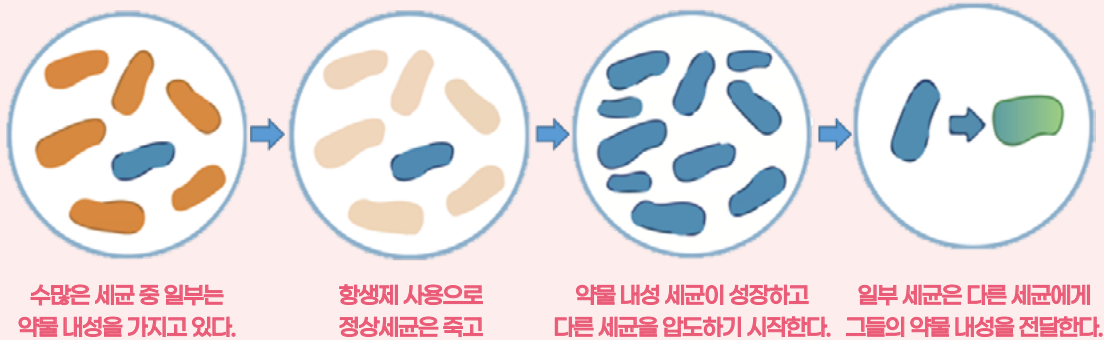


특별판 - 항생제 내성균

항생제 내성균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노출되어도 내성을 가져 항생제가 제대로 된 작용을 못하게 하거나, 항생제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세균을 뜻합니다.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면 보통의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워져 다른 항생제나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며,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< 항생제 내성균 발생 원인 >

- 항생제 내성의 초기 발생
 -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집단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음
 - 세균의 유전적 변이나, 과거의 항생제 노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음
-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
 -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증식을 촉진하는 원인
 -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, 잘못된 항생제를 사용, 항생제 치료를 완료하지 않는 것 등
- 항생제 내성균의 생존
 - 항생제를 사용하면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대부분의 세균은 사멸하지만 내성균은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증식할 기회를 얻게 됨



< 항생제 내성 예방 >

-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
 - ①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 복용법 준수
 - ② 항생제 나눠먹기 또는 남은 항생제 먹기 금지
 - ③ 항생제 복용법 의사와 약사에게 문의하기
- 평소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청결을 유지
-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

< 항생제 내성이 위험한 이유 >

- 감염치료의 어려움 발생
 - 항생제 내성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하지만 노인, 어린이, 만성질환자 등 면역이 약한 사람은 더 취약
 - 항생제 내성으로 항생제를 통한 감염증 치료가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음
- 의료체계에 위협
 - 인공 보형물 삽입, 장기 이식, 암 치료 등이 항생제에 크게 도움받고 있는데, 항생제 내성이 이런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림
- 경제적 부담
 - 입원 기간 연장, 치료비, 격리비, 검사비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증가
 - 개인과 사회전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
- 환경적 영향
 - 항생제가 환경으로 유출되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< 항생제 내성 전파 >

- 직접적인 전파
 - 사람과 사람, 동물과 동물, 동물과 사람 간의 직접 접촉으로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
- 의료기관에서의 전파
 - 항생제 내성균을 보유한 사람이나 동물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나 의료진, 방문객에게 전파
- 음식을 통한 전파
 -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
- 환경을 통한 전파
 - 항생제를 포함한 폐수가 강이나 바다에 버려지면, 그곳에 사는 미생물들 사이에서 전파
 - 항생제가 들어간 가축의 배설물이 토양에 퍼지면서 땅에 사는 미생물들에게도 전파
- 국제적인 이동과 전파
 - 여행자, 이민자, 또는 국제 동물 거래 등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전파



SAY YES TO ANTIBIOTICS
세균이 원인, 항생제 필요



SAY NO TO ANTIBIOTICS
바이러스가 원인, 항생제 불필요

자료제공 :



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
Gyeongnam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